



그린화워
지구의
미래 **울진**

Green Earth
Land of Life

**Organic
FOOD EXPO
ULJIN KOREA 2009**

2009.7.24 - 8.16

 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재)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 www.ofex.or.kr | 054 781 2005

주최 | 경상북도 울진군 장소 | 울진왕피천엑스포공원 주관 | (재)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조직위원회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상북도,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촌공사, 산림청녹색사업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LG전자 등

2009 SUMMER

여름
[통권379호]

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Pride
GyeongBuk
 프라이드 경북

발전농업부서 75-6470000-000162-08

문화 캘린더

Calendar



6 June

月	火	水	木	金	土	日
1 영주선비문화 축제 5.30 ~ 6.1	2	3	4 김천시민문화회관 뮤지컬 [싱글즈] 공연 6.4~6.5	5	6	7
8 포항문화예술회관 비올라 독주회(최승웅)	9 군위문화예술회관 가족뮤지컬 [피터와 늑대]	10 김천문화예술회관 시립국악단 찾아가는 음악회	11	12	13 김천문화예술회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지음곡악단) 성주문화예술회관 비보이, 가이금과 함께 떠나는 세계음악여행	14
15	16	17 구미문화예술회관 제3회 고신연시회전 제1전시실(6.17~6.21) 조동일 도예작품전 제2전시실(6.17~6.21)	18 구미문화예술회관 김천예술고등학교 향상음악회 구미발경이들소리 현지공연 자산동 새강 생태 자연습지	19 영덕예주문화회관 뮤지컬 [김종욱 찾기] 포항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싱글즈]	20 김천문화예술회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국악실내악단 청노)	21
22 구미문화예술회관 DVD영상물상영회 [팝 아바 콘서트] 포항문화예술회관 북부지방 상여소리	23	24 포항문화예술회관 상설브런치 퓨전 공연 - 차랑 그리고 "점사꽃 님산"	25	26 구미문화예술회관 김난희, 이성원 듀오연주회	27 김천문화예술회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그름 心 so cool)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28 구미문화예술회관 시인과 함께하는 풍물문화 축제한마당
29	30	*경주 인입지 상설공연 - 4. 25 ~ 10. 24(27회) / 6, 7, 8월 매주 토요일 20:00~21:30(90분) *구미문화예술회관 - 제27회 전국연극제 / 5. 28 ~ 6. 16 *구미문화예술회관 - 27회 전국연극제관련 전시회 / 5. 21 ~ 6. 16 *울릉군 민속 그네 뛰기 - 2009년 6월 중 / 북면 나리분지 야영장				

7 July

月	火	水	木	金	土	日
		1	2 군위문화예술회관 2009 국립예술단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국립창극단	3	4 김천문화예술회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 공연(취화로국악단)	5
6	7	8	9 군위문화예술회관 [라이어] 1탄	10	11 김천문화예술회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타악그룹노리, 이락무용단, 안동하회탈춤 보존회)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12
13	14	15	16	17	18 김천문화예술회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산이악회, 국악실내악단 여음)	19
20	21	22	23	24	25 김천문화예술회관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경북국악관현악단) 제6회 포항국제불빛축제 영덕여름축제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26
27	28	29	30	31 영덕황금어축제 영덕군민운동장 옆 오십천변 (7. 31 ~ 8. 4)	*울릉도 회당문화제 - 2009년 7월 중 / 울릉군 일원	

C.O.N.T.E.N.T.S

스페셜 이슈

- 04 대한민국 새마을 박람회 개최
- 06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위해 총력 집중
- 08 신 해양시대 부응하는 동해안 발전전략 구상

알찬살림 부자경북

- 10 경북도 비상경제 통합 콜 센터 개동
- 11 실업자에게 희망을! '경북전직지원센터' 개소

웃음가득 행복경북

- 12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0년 10월 개최
- 16 경북 청도에 등지 튼 개그맨 전유성을 만나다!

도민사랑 일류경북

- 18 우리 땅, 독도 이야기!
- 20 경북도, 철도 르네상스시대 연다!
- 21 '영남 옛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

나드리, 이리 오이소!

- 22 백두대간이 숨기고 있는 비경, 울진 불영계곡
- 24 경북의 맛-여름이 제철, 수박 향 머금은 '은어'

프라이드 News+

- 26 새마을여인상 시상
- 27 찰칵! 경북의 오늘
- 32 도정 단신
- 34 도의회 소식
- 44 경북 알림이
- 50 지금 시·군에서는



2009 SUMMER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최종원
 · 발행일 | 2009년 6월 22일
 · 문의처 | 경상북도 공보관실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2031 FAX. 053)956-4926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공보관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통권379호]
표지이야기
 곡류를 형성한 물이 태극모양으로 휘둘러 돌면서
 신지수려한 비경을 곳곳에 빚어내고 있는
 불영계곡의 푸른 물줄기처럼
 경북의 녹색성장을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
 <울진군 불영계곡>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KOREA SAEMAUL EXPO

2009.9.19(토)~9.23(수) 5일간
경상북도 구미시(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과 50여 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위에 가난과 굶주림
내일의 희망으로 새마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르막도, 내리막도 희망이 있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힘든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희망의 새싹을 함께 키워 나갑시다.

2009년 9월 19일
대한민국 희망나눔 대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마을,
내일을 만드는 희망

■ 사전행사

- 희망나눔프로젝트(D-100일)
- 새마을기 전국릴레이
- 환경사랑! 푸른낙동강 만들기 캠페인
- 사진공모 및 희망UCC콘테스트
- KBS열린음악회

■ 부대행사

- 오페라 창작공연
- 국민대화합 새마을 걷기대회
- 국제학술대회
- 새마을 합창제
- 팝스오케스트라 공연
- 녹색 새마을 백일장

■ 체험행사

- 근면마당
- 나도 지게꾼, 날아라! 감정고무신, 희망을 그려요
- 자조마당
- 짚공예, 친환경 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환경 캐릭터 종이접기
- 협동마당
- 추억의 퍼즐 맞추기, 새마을 희망팸프, 힘 합쳐서 끌고 밀고



KOREA
SAEMAUL
EXPO



대한민국새마을박람회는 친환경 탄소중립행사입니다.

박정희 체육관 「희망그루터기」 새마을, 대한민국 희망이야기

만남의 길 안녕하세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당신의 생각, 새마을 상징물, 새마을 뉴스와 영상

역사존 새마을 운동으로 가난을 이겼습니다.

새마을 어제와 오늘, 초가마루, 영광의 얼굴들, 성공사례

희망새마을존 새마을은 정신문화운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새마을 비전, 21세기 지도자상, 새마을이 계속되어야 할 10가지
이유, 새마을과 녹색성장

글로벌존 새마을은 대한민국의 고유브랜드입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해외보급 우수사례, 독심봉사단체의 활동

멀티플렉스존 새마을운동은 너와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영상·조명·공연이 어우러진 3차원 전시공간

공존의 길 새마을, 내일의 희망입니다.

경북 새마을운동, 21세기 새마을운동, 인터넷 새마을운동

시민운동장 「더불어 숲」

대한민국 희망나눔 축제!

새마을 명품관 대한민국 16개 시·도관

경상북도 23개 시·군관

녹색문화관 희망그린관, 산림관, 농업관, 6070문화관, 독도관, 이북5도관

새마을 놀이터 I♥대한민국 희망그린체험, 새마을 놀이체험마당

상설공연장 공식행사, 어울림 놀이마당, 새마을 마당극, 친환경 타악 퍼포먼스

이벤트광장 새마을알뜰 나눔장터, 도농상생 특산물장터



LG디스플레이 구미 6세대 LCD생산공장 확장·준공

세계 최대 LCD생산거점... 투자유치 노력 결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LG디스플레이 구미 P6E공장 준공식이 4월 15일 김관용 도지사, 김성조·김태환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LG계열사 사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지난해 세계적 경기침체와 LCD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LG디스플레이의 공격적인 투자는 최근 중국 시장의 수요 증가와 맞물리면서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공장이 풀가동 되는 등 선제 투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번 대규모 증설투자를 통해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은 노트북 및 모니터용 LCD패널 등 6세대 LCD 부문에 있어 세계 최대의 생산기지로 입지를 굳히게 되었으며, 이번 준공을 계기로 1천5백명의 대규모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실업 해소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지역에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마이크론 등 7개의 LG계열사가 활발한 기업활동과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LG그룹의 구미지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으로 LG전자에서도 새로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등 구미 지역이 세계적인 IT, 디스플레이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유치기업 속속 결실...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대

경상북도는 민선4기 출범 이후 10조 1천억원 이상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하였고, LG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증설투자 준공에 이어 경주 건천 산업단지에 3,200억원을 투자한 서한ENP의 5월 준공 및 구미 국가4단지에 2,000억원을 투자한 STX솔라가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상주 청리산업단지에 1조 5천억원을 투자한 웅진폴리실리콘과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3억 2,500만

불을 투자한 엑스모빌, 1,500억원을 투자한 코오롱 등 대규모 현장에서도 부지조성과 건축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국제부품소재산업전’ 및 ‘한일경제인회의’ 에서 투자유치 활동

이외에도 경상북도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도정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서는 구미와 포항에 조성 중인 부품소재 전용공단 입주업체 유치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소재 KINTEX에서 삼성, LG, 포스코, 미쓰비시, 케논, 도시바 등 한국과 일본의 부품소재 대표기업 250여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국제부품소재산업전’에 참가하여 포항·구미시와 함께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한·일경제인회의’에도 참가하여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부품소재전용공단 입주를 위한 유치활동을 펼쳤다.

특히 도에서는 ‘국제부품소재산업전’과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50여명의 일본 비즈니스 사절단을 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지정된 구미산업단지 현장으로 초청하여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 도레이새한 공장과 LG전자 방문을 통해 외국인 기업의 경북투자 여건을 직접 확인케 하여 참여한 일본기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수도권기업 유치 위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이어 4월 22일에는 수도권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서울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지식경제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중앙의 경제관련 기관단체장과 웅진폴리실리콘,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STX, POSCO 등 MOU체결기업 및 삼성, LG, 현대 등 국내 주요기업 CEO, 출향인 기업인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도에서는 3대 문화권 사업, 낙동강 프로젝트, 동해안에너지 클러스트, 동해안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투자환경을 소개 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계기관의 협조를 부탁했다.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과 연계한 동해안 해양개발 추진

5대 분야 14조 3,136억원 투입... 동해안 발전방향 모색

경상북도는 최근 동해안에 대한 정부의 초광역 개발권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동해안 발전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 에너지산업클러스터', '해양바이오산업클러스터', '역사·문화·생태관광육성', '울릉도·독도 국제관광 휴양섬 개발', '해양기반조성사업' 등 5대 분야 20개 사업에 14조 3,136억원을 투입, 해양개발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4월 30일 대구 엑스코 인터볼고

호텔에서 해양전문가 100여명을 초빙, 신성장 동력원으로서의 동해안 지역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해양전문가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해양전략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동해지역 복합형 해양과학교육관 건립방안', '해양 바이오산업의 활성화 방안', '동해안 해양관광산업의 발전방안', '울릉도·독도 국민관광휴양섬 조성방안' 등 주요 프로젝트의 실천전략을 모색했다.

도에서 추진키로 한 동해안 지역 발전전략의 구체



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할 수 있는 그린에너지클러스터 사업으로 사업비 5,500억원을 투입, 국립 해양에너지 연구소 및 세계 최고의 멀티해양 기능이 있는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을 동해안에 건립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의 생명공학산업을 주도할 해양 바이오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조 9,256억원을 투입, 해양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동해권 Sea food valley 건립, 해양 심층수 클러스터 조성, 동해권 해양생물 자원관 등을 건립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활용, 동해안을 역사·문화·생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6조 8,500억원을 투입, 동해안 초광역권 관광 탐방로 개발, 동해안 연안·국제크루즈 항로 개설, 울진 왕돌초 월드아일랜드 조성, 동해 복합해양관광단지를 조성키로 하였다.

이외에도 신비의 섬 울릉도와 국토의 막내 독도를 국제 관광 휴양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사업비 2조 696억원을 투입하여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사업, 울릉 사동항 개발, 울릉항 해양복합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키로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북도는 해양기반사업의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2조 9,184억원을 투입, 영일만항을 조기에 건설하고 배후단지를 조성하며, 포항 구항 재개발, 마리나 항만 개발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한 해양전략사업은 대부분 국책사업화해 나갈 수 있는 대단위의 프로젝트"라면서 "기존의 동해안 해양개발 종합계획을 보완하고 동해안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안 해양개발 종합계획(Go-project)



지역번호 없이 1588-3337로 전화하세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만들기 등 비상경제 시책 종합안내

경상북도는 최근의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 실직자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통합 콜 센터(1588-3337)를 개통하여 5월 1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 콜 센터에는 안내전담요원 4명을 배치, 민원인이 지역번호 없이 1588-3337로 전화를 걸면 수신자 부담으로도 비상경제 시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담당부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콜 센터에서 안내하는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알선 지원 제도, 신용보증제도,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 지역 중소

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도, 6월부터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 기초수급자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보조서비스 등 실직가장,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일자리 지원시책 안내,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한시생계비지원 등 위기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위한 긴급복지대책 안내 등이다.

경상북도는 통합 콜 센터 시행에 앞서 비상경제 상황실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재 시행중인 비상경제 관련 각종 시책들의 종합안내서인 '이제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를 제작하여 시·군, 읍·면·동사무소, 금융기관 등에 배포한 바 있다.



경주·구미지역에 전직·재취업지원센터 개소 실직자 일자리 무료로 찾아드려요!

경상북도는 지난 5월 14일 실직자에게 성공적인 재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경북전직지원센터' 2개소를 중소기업이 많은 구미와 경주지역에 각각 개소하였다.

경북전직지원센터는 전직 및 재취업을 필요로 하는 실직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구미시, 대구지방노동청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였으며, 대구지방노동청, 경북중소기업지원센터, 경북경총, 한국노총 등 각종 기관의 취업정보를 통해 빈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실직근로자에게 밀착상담, 집합상담, 직업교육 등 개인별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실업자 해소에 적극 힘쓰고 있다.

지원센터에는 6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실직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갈 곳이 없는 실직자들이 쉽게 찾아와 쉬면서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직장을 알아볼 수 있고, 다양한 교육과 상담이 준비되어 있다.

전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전화나 온·오프라인으로 등록을 하면 컨설턴트와 1대1 상담을 하게 되며, 개별 변화관리와 진로계획,



경력·역량을 분석한 다음 적성검사와 성향검사 등을 통해 새로운 직장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면접 및 협상전략 등을 준비할 수 있다.

이 같은 준비를 끝낸 후 구인구직 정보를 활용해 신청자에게 알맞은 직장을 알선해주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사후 관리도 해준다. 서비스 기간은 3개월이고, 사후관리를 포함하면 최대 6개월 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구미 전직지원센터 : 054)461-5522
경주 전직지원센터 : 054)742-4426



관광대국 태국에서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0' 열린다!

경상북도-태국, 6월 양해각서 체결... 오는 10월 공동조직위 발족



경상북도가 태국 정부와 공동으로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한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0' 행사 추진이 위라 롯포짜나랏(Vira Rojpojchanarat) 태국 문화부차관의 방한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태국측 총괄 책임자인 위라 차관은 5월 6일 김관용 도지사를 만나 6월 중으로 엑스포 공동개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도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위라 차관은 이날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내년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 까지(잠정) 사남루양광장, 태국국립극장, 방콕국립박물관, 탐마삿대학교, 국립미술관 등 방콕왕궁 일원에서 분산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개막식 및 폐막식, 한국 태국민속문화촌, 세계민속공연 및 현대공연, 4D 세계문화유산전, 한국·태국 문화유산전, 국왕 탄신일 축하행사, 국제 아트마켓 및 전시, 한국·태국 음식 및 의상 페스티벌, 세계 팝 콘서트, 멀티미디어 및 게임 박람회, 영화제, 아세안 관광홍보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태국은 연간 1천4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2007년 태국관광청 자료, 한국 645만명의 224%)하는 관광대국"이라며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통해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우리문화를 홍보하고, 한국과 경북을 방문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콕-경주엑스포 개최로 한국 문화산업 대외경쟁력 강화, 경북도 브랜드 가치 향상, 한국 및 경북의 외국인 관

광객 증가가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위라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방콕-경주엑스포는 태국 대규모 시위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관광대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태국에 한국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추진은 지난 2007년 4월 태국 문화부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12월 양측이 행사 개최에 합의하는 의향서(LOI)를 체결한 바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방콕-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대해 국제행사 개최 승인을 받았으며, 6월 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0월께 공동조직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경주엑스포는 지난 '98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7년에 개최됐으며, 2006년에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일원에서 열려 우리나라 종합문화행사 수출 1호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2006년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고부가 문화외교, 신(新) 문화한류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행사 이후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대 캄보디아 수출 1위, 투자 1위 국가에 올랐다.

내년 방콕행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두 번째 해외 진출행사로 우리나라 문화행사 조직위원회와 자치단체들에게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0’ 성공개최 적극 지원” 태국 왕실사원 큰스님, 경주 엑스포공원 방문

태국 왕실 전용사원인 방콕 에메랄드사원의 프라 담바라자라야 큰스님이 5월 24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찾았다.

프라 담바라자라야 큰스님은 에메랄드사원이 불국사에 기증한 불상(프라 사싸다) 봉안식에 참석한 후 경주엑스포공원을 들렀다.

이날 방문한 큰스님 일행은 판와나메디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총재(전 태국 외교부 장관), 태국 부승왕(僧王), 승왕 비서실장을 비롯한 태국 불교계 대표단과 임선교 WFB 한국본부 명예회장, 불국사 스님 및 신도 등 50여명이다.

이들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브리핑실에서 내년 경상북도와 태국 정부가 방콕에서 여는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0’에 관한 홍보영상물을 시청한 뒤 경주타워, 신라문화역사관, 입체영화, 한국화가 박대성 전시, 세계화석박물관 등을 관람했다.

프라 담바라자라야 큰스님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관람 후 “천 년 전 신라의 정신과 예술을 불국사뿐 아니라 경주타워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한 뒤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개최로 태국과 한국이 종교적, 문화적, 산업적으로 우호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태국 불교계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엑스포측은 “태국 왕실과 종교, 정치, 문화 등 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불교계 대표단의 이번 경주엑스포공원 방문으로 ‘방콕-경주엑스포’ 추진에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큰스님 일행은 5월 25일 석굴암 참배 및 타종식을 가지고 태국으로 돌아갔다.



▲ 방콕 에메랄드사원의 프라 담바라자라야 큰스님(왼쪽에서 세번째)

“천 년 전
신라의 정신과 예술을
불국사뿐 아니라
경주타워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서 도립교향악단 특별연주

“한 달에 한 번, 경주엑스포공원이 마법에 걸린다. 클래식 선율에 취해...”

천년고도 경주가 샛노란 유채 꽃바람을 타고 흐르는 클래식 선율에 취했다. 4월 18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엑스포문화센터에서 경상북도립교향악단의 ‘경주엑스포공원 관람객을 위한 특별 연주회’가 펼쳐진 것이다.

이날 특별 연주회는 이현세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베르디의 ‘나부코 서곡’, 비제의 ‘카르멘 조곡 제1번, 제2번’ 등이 선보였다.

또 ‘블루탱고’, ‘고장난 시계’ 등으로 유명한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 (트럼펫을 위한 소품곡), 비롤도의 ‘엘 초클로’ (아르헨티나 탱고음악), 헤르난데스의 ‘엘 콤판체로’ (라틴음악), 최성환 편곡의 ‘아리랑’ 등을 들려주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현세 상임지휘자는 “이번 특별 연주회의 레퍼토리는 세미클래식 위주의 덜 무겁고, 덜 고전적인 작품들”이라며 “경주시민들의 문화예술지수와 관광객들의 경주 호감도를 ‘샵’(#-반음 올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경북도립교향악단의 특별 연주회는 오는 12월까지 매월 1회씩 토요일(6월 27일, 7월 11일, 8월 22일, 9월 26일, 10월 24일, 11월 28일,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관람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운영팀 054)740-3053





개
그
맨
전
유
성
Jeon Yu Seong

청도에서 사는 동안 경상도만의 문화잔치 계속 해나갈 터

‘자장면’ 처럼 배달하는 코미디공연 등 새로운 장르 개척하고파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대구와 청도를 잇는 30번 지방도 길옆으로 한적한 시골 풍경과는 다소 생뚱맞은 분위기의 ‘니·가·쏘·다·쨌’ 라는 이름을 새긴 건물이 있다. 사람 웃기는 데는 타고난 재주를 가졌다는 ‘개그맨’ 전유성씨가 ‘지나다니다 보니 좋아서...’ 머물고 있는 곳이다.

이 곳은 ‘짬뽕’ 과 ‘피자’ 를 팔고 있는 카페, 그러나 때로는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가수들이 열띤 공연을 펼치기도 하는 문화공간이 된다. 서수남, 임지훈, 김도향, 이동원, 강산에, 양희은 등을 초청하기도 했고,

“

오는 7월 14일에는 ‘초복’ 을 맞아 청도 야외공연장에서 애완견을 위한 ‘개나 소나 콘서트’ 를 연다. 60인조의 아모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미 초청해 놓았으며, 개그맨 이홍렬 사회로 가수 양희은 등 내로라하는 연예인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워낭소리’ 같은 영화를 사람들이 모여 같이 보기도 했다.

“언제 누가 공연을 한다는 계획 같은 건 없어! 그냥 되는대로 하는 거지 뭐... 무슨 공연을 할지, 누가 올지 정해지면 며칠 전에 공연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고... 그게 다야! 그런데 청도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공연, 저런 공연 많이 할 생각이야. 여기 청도에서 경상도만의 문화잔치를 계속하는 거지 뭐...”

경상북도와 경북 사람들이 어떠냐는 물음에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지 뭐! 어디에 살고 있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기 마련인데... 경북 사람만의 지역색을 따져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습지!”라며 우문(愚問)을 던진 이가 머리를 굽적지게 하는 현답(賢答)을 내놓는다.

언제나 아이디어가 넘치는 비결에 대해서는 “난 오히려 역발상이 자연스러워! 창의성으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잖아!”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청도가 ‘감’ 이 유명한데, 서울에 사는 지인들에게 ‘감’ 을 선물로 보내면서 ‘항상 도와주셔서 ‘감’ 사드립니다!’ 라고 보냈어! 난 이런 문구를 청도군 이곳저곳에 붙여놓으면 어떨까 생각해! 청도에 오시면 ‘감’ 사드려요!” 청도군의 특산물인 ‘감’ 을 표어로 만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내친 김에 경북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를 묻자 “관광이라는 것이 ‘볼 관(觀)자에 빛 광(光)자’잖아. 볼 빛이 있어야 관광이지. 다른데서 안 보던 빛,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불러야지. ‘베니스 가면 축제’ 가 말이야. 뻐 속까지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추위 속에 열리지만 볼거리가 있으니 관광객들이 몰려가잖아. 그 덕에 주변 상가에 겨울 모자, 외투, 목도리도 다 팔리고...” 이어 그는 “얼마 전 울릉도 오징어 축제 때 ‘먹물로 가훈쓰기’ 와 울진 대게 축제에서 ‘옆으로 달리기’ 를 제안했었어! 지역마다 하는 축제도 차별화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아이디어가 10%라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90%라고 실천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경상도에 살면서 개그맨을 꿈꾸고 있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학생들을 모아서 방송국을 통하지 않고도 개그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여기 청도에 개그 트레이닝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래서 청도 사람들이 모 심을 때나, 감 팔 때 부르면 ‘자장면’ 처럼 배달하는 개그공연도 한번 해보고 싶어!” 참 기가 막힌 발상이 푹푹뚫 쏟아졌다.

오는 7월 14일에는 ‘초복’ 을 맞아 청도 야외공연장에서 애완견을 위한 ‘개나 소나 콘서트’ 를 연다. 60인조의 아모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미 초청해 놓았으며, 개그맨 이홍렬 사회로 가수 양희은 등 내로라하는 연예인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이디어는 장난스러워도 공연만은 제대로 준비한다.

“그런데 개가 없으면 못 들어와. 또 너무 큰 개는 안 데려 왔으면 하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뭐...”라며 시원스레 웃었다.

*개나 소나 콘서트(애완견과 함께 입장하는 무료공연)
- 7월 14일 저녁 8시 / 청도 야외공연장



독도 종합 자료집 '독도총서' 발간

대한민국 영토 소중한 지침서



경상북도는 국민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독도연구기관 통합협의체'의 2008년도 연구 성과물을 종합·정리한 '독도총서'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독도총서'는 총 587쪽 분량으로, 독도의 현황을 비롯하여 역사, 자연환경, 독도의 가치와 영유권, 독도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등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독도의 현황은 독도의 일반사항과 지적·관리현황

및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독도관련 교육현황을 정리하였고 제2편 독도의 역사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독도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와의 관계를 각 시대별로 문헌을 통해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독도의 지형과 지질, 해양·육상생태, 토양환경과 수목현황 등 독도의 자연현황을 개괄하였으며, 제4편에서는 독도의 가치와 국제법상의 독도의 지위를 소개했다. 제5편에서는 독도와 관련된 정부정책을 근간으로 독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성과 향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독도총서'는 전국의 독도관련 유관기관, 연구기관, 주요 도서관 등에 배부하여 독도연구 및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에 '한국의 동해와 독도'를 올바르게 알린다!

독도홍보물 외국어본 발간·배부

경상북도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동해와 독도'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어 파급효과가 큰 언어 위주로 독도홍보물을 번역·발간하여, 재외공관·주한외국공관 및 국제기구·한국학 관련 외국대학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한 외국어 독도 홍보물은 지난 2월부터 경북도와 한국 외국어대학교가 손잡고 번역 및 감수를 마친 것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쓴 만화 '독도 이야기'와 독도의 기본현황과 자연환경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동해바다 독도' 브로슈어 등 2종이다.

만화 '독도 이야기'는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개 언어로, 브로슈어 '동해바다 독도'는 기 번역된 영어 외에 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스페인어 등 4개 언어로 발간하였다.



미국 워싱턴에서 '2009 Korea Festival' 개최

경북의 우수 문화상품과 우리 땅 '독도' 홍보

경상북도는 지난 5월 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아시아의 달'을 맞아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한국대사관, 코리아타운에서 안동한지, 천연염색, 도자기 등 경북의 우수 문화상품과 독도 홍보를 위한 '2009 Korea Festival'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워싱턴 지역의 각국 대사, 세계 특파원 등 외국인 1만여명이 행사장을 방문하였으며, 천연염색과 한지, 도자기 등 경북도의 우수한 문화상품에 많은 관람객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국문화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각국 외교관과 언론인 등 여론 주도층이란 점에서 우리문화와 독도, 경북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울릉도·독도 방문

경상북도는 5월 14일 울릉도·독도를 방문한 국회 선진사회연구포럼 소속 국회의원 20여명을 맞아 울릉도 국제 관광섬 개발, 독도수호 현안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이에 포럼의 대표인 유정복 의원은 울릉 경비행장 건설, 독도방파제·독도 체험장 건설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차원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원어민 교사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

경상북도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북지역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신비의 섬 울릉도·독도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독도의 역사와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경상북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EPIK(English Program in Korea)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영어권 출신 원어민 교사 중에서 45명을 선발한 것으로, 원어민 교사가 없는 울릉군 지역의 중·고생들이 원어민 교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울릉도·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도 마련되었다.

동해남부선 (포항~울산) 철도복선화 착공, 2012년 개통

중부내륙고속철도 추진,
중앙선 복선화 등
철도인프라 확충에 역점

경상북도에서는 낙후된 도내 북부권과 동해안지역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철도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하고, 중부내륙고속철도, 중앙선, 김전선(김천~전주), 김진선(김천~진주) 등 추진 중인 철도사업 9개 노선 701km 조기착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에서는 4월 23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신포항역사 현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지역 국회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해남부선(포항~울산) 철도복선 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동해남부선 철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2조 5,65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포항~울산간 단선을 포항~경주~울산간 76.5km를 잇는 복선철도화 사업으로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와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관용 도지사는 "동해남부선은 포항영일만 물류수송과 경주 관광산업이 어울려진 황금노선"이라면서 "앞으로 친환경·고효율의 철도망 확충으로 경북의 철도 르네상스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2010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동대구~경주~부산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과 수도권~문경~도청예정지~동대구를 잇는 중부내륙고속철도를 적극 추진하여 도청예정지와 북부권의 고속철도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일반철도로는 지난해 3월에 착공한 포항~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와 대구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조기에 준공토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도담~영천간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김천~전주, 김천~진주간 철도건설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키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영남 옛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

가족과 함께 '영남 옛길'을 걸어보세요!

자연사랑연합(<http://greentopia.or.kr>) 통해 신청, 참가비 무료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과 가족·동호회 단위로 참여하는 체험형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새로운 생태탐방 관광코스 개발로 국토사랑과 자연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영남 옛길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인 자연사랑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10월까지 5회에 걸쳐 낙동강 예던길, 영남대로, 조선 통신사길, 동해안 간고등어길 및 청량산 예던길(퇴계오솔길) 등 영남 옛길 5개 지역을 답사할 계획으로, 1회 40명으로 제한하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영남 옛길 답사 프로그램 운영은 무료로 실시되며, 참가는 자연사랑연합(전화: 054-457-4572, 홈페이지: <http://greentopia.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월 별	답사지역	답사옛길	비 고
6월	안동시, 봉화군	퇴계오솔길(예던길)	출발장소
9월	상주시	영남대로	- 자연환경연수원(구미)
10월	울진군	십이령행상길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미리부터 걱정이 앞선다. 벌써부터 시원한 곳으로 떠나는 여름휴가를 꿈꾼다. 아름다운 경치에 눈도 호사를 누리고, 무더위에 지친 몸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는 피서지는 없을까?! 이런 분들에게 강력추천 하는 곳이 있다.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기암괴석과 백두대간을 향한 깊은 계곡, 바라보는 눈을 시원하게 하는 맑고 푸른 물, 경북 울진군 불영계곡이다.

누군가의 설명을 빌리자면 “‘한국의 그랜드 캐년’ 이라고 불리는 불영계곡, 우리나라에서 물사람들의 발길에 유린당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비경을 찾기로 쉽지 않다. 그나마도 비경으로 이름나고서도 그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기란 더 어렵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울진 땅에 있는 불영계곡은 단연 돋보인다”고 경탄을 쏟아낼 만큼 절경을 자랑한다.

대한민국 대표 아름다운 길 7번 국도가 울진 왕피천을 만나는 길, 수산검문소에서 왕피천을 왼쪽에 두고 영주와 현동방면으로 접어들면 불영계곡으로 가는 길 초입이다.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서 서면 하원리까지 15km를 일컫는 불영계곡은 울진과 봉화를 잇는 36번 국도를 따라 이어지기 때문에 드라이브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계곡의 경치를 구경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에 ‘불영정’, ‘선유정’이라는 전망대가 있어 굽이치는 물결과 기암괴석들이 만들어낸 빼어난 풍광을 구경할 수도 있으며, 곳곳에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야영장은 1년 중 여름(7~8월)에만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운영되어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탓에 여름이 아니고선 계곡물에 발을 담글 수조차 없다.

불영계곡 중간쯤에는 ‘천축산 불영사’ 라는 이름난 사찰이 있다. 이 절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 보통의 절이 산을 등지고 강이나 계곡을 앞에 두고 있는 반면에 불영사는 계곡을 등지고 산을 바라보고 있다. 대웅전 앞의 연못 끝에서 정면에 선 세 개의 칼바위가 연못에 비친 모습을 보면 관음상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불영사라는 이름도 바로 거기에서 유래했음을 짐작하게 된다.

또한 계곡의 상류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에는 예로부터 궁궐 건축 등에 쓰였다는 금강소나무 최대 군락지가 있다. 이 일대는 국유림으로 금강소나무 숲길을 걷는 트레킹 코스가 잘 가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청과 울진군은 이곳에 금강송 생태관과 야생화 관찰관, 버섯 생태 관찰관, 생태 탐방로, 산악 레포츠 시설 등 각종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금강송 생태 숲’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영계곡 여행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인근에는 다양한 민물고기를 한 자리에서 구경할 수 있는 경상북도민물고기전시관, 왕피천과 동해바다를 만나는 망양정 해수욕장, 예로부터 관동 팔경 중 제일경이라는 망양정, 2억5천만년 전에 자연이 만든 성류굴, 물 좋기로 소문난 유황 온천인 덕구온천 등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다.

경상북도 울진에서 올 여름을 즐겨보자!

굽이치는 물결과 기암괴석들이 만들어낸 빼어난 풍광 불.영.계.곡.

‘한국의 그랜드 캐년’ 이라고 불리는 불영계곡, 우리나라에서 물사람들의 발길에 유린당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비경을 찾기로 쉽지 않다. 그나마도 비경으로 이름나고서도 그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기란 더 어렵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서 울진 땅에 있는 불영계곡은 단연 돋보인다.



▲소광리 금강송 군락



▲선유정

담백한 맛, 독특한 수박 향으로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 은어.



단백질
칼슘
철분 등
풍부한 영양분으로
지친 여름 무더위에 제격

제철 음식과 놀이의 구분이 희박해지는 요즘, 현대인들은 계절의 변화에 둔감하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으며, 음식도 제철이 있다.

여름에 제철을 맞아 사람들의 미각을 자극하는 것 중에는 '은어'가 있다. 단백질·칼슘·인·철분 등 영양분이 풍부해 무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시켜 주는 생선으로, 유리아미노산 중에서 단맛이 가장 강한 글리신과 프롤린 등이 증가해 1년 중 6~8월에 가장 맛이 좋다는 생선이다.

담백한 맛과 살아 있을 때는 독특한 수박향이 나는 특징이 있어 예부터 임금님의 수라상에 진상하던 진귀한 특산물로 수중군자 또는 청류 귀공자라 불려왔으며, 특히 본초강목에는 훈제은어가 편도선염에 특효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은어는 맛이 담백하고 비린내가 나지 않아 주로 회로 많이 먹는다. 또 튀기거나 굽거나 매운탕을 끓이며, 조림으로 먹기도 한다. 특히 만들기 쉽고 먹기도 간편한 '어죽'은 여름 더위에 지친 가족 영양식으로 적당하다.

이외에도 쌀을 잘 씻어 손질한 은어와 함께 지어낸 은어밥, 은어찜 등 예로부터 전래되어오는 요리법은 물론 요즘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퓨전요리법의 등장으로 다양한 '은어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은어는 하천의 상류, 맑고 깨끗한 1급수에 서식하는 소류성 민물고기이며, 연어와 같은 회귀성 어족으로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입턱이 발달하여 돌이끼를 갉아먹고 15~30cm로 급성장 한다.

영덕 오십천에서 볼 수 있는 '황금은어'가 이러한 회귀성 어족, 또한 낙동강 상류지역인 봉화 내성천과 안동 도산면 단천리 등에서 나는 은어들은 안동댐이 건설된 지난 1976년 이후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안동댐을 바다 삼아 서식하고 있으며, 울진 왕피천 등도 은어 서식지로 유명하다.

경북 도내에서는 영덕 오십천 '황금은어축제'와 봉화 내성천 '봉화은어축제'가 매년 개최되어 은어잡이 체험행사, 은어요리 시식회,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제철 은어 맛보러 경북으로 오세요!

- Festival •
- * 제11회 영덕황금은어축제
 - 2009. 7. 31~8. 4, 영덕군민운동장영 오십천변
- * 제11회 봉화은어축제
 - 2009. 8. 1~8. 9, 봉화읍 체육공원 · 내성천 일원



희망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여인들 한자리에

2009 새마을여인상 대상에 안동시 권분희씨

경상북도는 5월 14일 경주 엑스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상천 도의회 의장, 박몽용 도새마을회 회장, 새마을부녀지도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 꾸꾸기 실천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 새마을여인상 대상에는 역경을 딛고 봉사활동과 배움으로 타인에 귀감이 된 권분희(안동시 녹전면)씨가 수상하였으며, 이외에도 효행상, 화목상, 봉사상, 다문화가족상 등 부문별로 23명을 시상했다. 또한 평소 부인의 봉사활동을 헌신적으로 외조해온 남편 23명에게 주는 외조상과 우수부녀회장 23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했다.

〈2009 새마을여인상 수상자 명단〉

시상종류	소속	직위	성명
대상	안동시 녹전면 녹래리 새마을부녀회	회원	권분희
효행상	청송군 청송읍 금곡3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백진수
화목상	상주시 동성동 11통 새마을부녀회	회장	석혜숙
봉사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정숙
다문화가족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월평리 120		권소연
새마을여인상	포항시 북구 중앙동 49통 새마을부녀회	회장	오귀분
"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새마을부녀회	총무	정화순
"	김천시 앙금동 4통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영희
"	구미시 고아읍 대망2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문외숙
"	영주시 하망동 21통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정옥
"	영천시 고경면 창상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정태고
"	문경시 산북면 호암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일순
"	경산시 서부1동 새마을부녀회	회원	이외세
"	군위군 고로면 가암2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정순환
"	의성군 옥산면 신계1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유경이
"	영양군 석보면 새마을부녀회 광역지도자	회원	권분영
"	영덕군 지품면 오천1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조위순
"	청도군 청도읍 사촌2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철순
"	고령군 우곡면 대곡2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김순연
"	칠곡군 약목면 관호3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고영순
"	예천군 보문면 신월1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류수영
"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도분자
"	울진군 북면 부구1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황영분
"	울릉군 울릉읍 사동1리 새마을부녀회	회장	임영희

경상북도, 첨단 수(水)처리 정수장치 제조회사 유치

교포기업 Environmental Energies와 5,000만불 투자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6월 1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김관용 도지사, 최병국 경산시장, 최경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포기업 Environmental Energies사와 수(水)처리 분야의 정수장치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5,000만불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nvironmental Energies사는 관련분야 5종의 미국특허와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로서, 우선 경북 테크노파크에 임시거점을 마련, 내년부터 5,000평 이상의 신규 부지를 물색하여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추어 한국 및 세계시장을 공략할 계획으로 100여명의 직접 고용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삼부자(三父子) 동기생 탄생

2009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 넘는 1,400여명 신청

경상북도가 미래 농·어업을 이끌어 갈 전문경영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경북농민사관학교 2009년도 신입생 모집이 1,100명 정원에 1,400여명이 신청하는 등 농업인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몽골농업개발과정에 입학한 서명선 씨(칠곡군 기산면 죽전리)와 장남 현수씨(한국농업사관과정), 차남 승훈씨(지역와인명품화과정) 등 삼부

자(三父子)가 함께 등록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매실가공 등 복합영농에 종사하는 아버지 서명선 씨와 장남 현수씨는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마케팅 시장 개척에 관심이 많고, 차남 승훈씨는 햄, 베이컨 등 요리개발에 남다른 재주가 있어 이들 삼부자가 지역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 모내기 현장 일손돕기 지원

칠곡군 기산면 영리 죽전들에서 승용이앙기 탑승 모내기 작업

김관용 도지사는 5월 22일 칠곡군 기산면 죽전들 김종기 농가의 모내기 현장을 방문하여 모내기 작업을 돕고, 작업 중인 농가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에 일손을 지원한 김종기 농가는 현재 금종쌀 작목반 대표로서 34ha의 논에 친환경농법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시스템을 갖춘 쌀 전업농가이다.



한의학 산업의 새로운 메카!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개원

경상북도는 보건복지가족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설립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개원식을 3월 24일 김관용 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이상천 도의회의장, 지역대학 총장, 기업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경산시 갑제동 9,911㎡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제품개발실, 분석기기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앞으로 한방신약 개발,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품질검사와 인증 등을 주요 핵심연구사업으로 추진한다.



올해의 경북 브랜드 쌀 “Best 6” 선정

도내 250여종 브랜드 쌀 중 엄격한 품질평가 실시

경상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어 전국의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250여종의 브랜드 쌀 중에서 엄격한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고령군의 ‘고령옥미’, 상주시 풍년RPC ‘상주풍년쌀골드’, 안동시 서안동농협 RPC ‘양반쌀’, 의성군 한가위RPC ‘의성황토쌀’, 상주시 상주농협RPC ‘금방아쌀’, 구미시 해평

농협RPC ‘흑두루미쌀’ 등 6개 브랜드를 ‘2009 경북 브랜드 쌀’로 선정하였다.

이들 브랜드는 1년간 상품 포장재 등에 수상내역을 사용할 수 있고,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 등 홍보지원 혜택이 주어지며, 중앙단위 평가에 경북 대표로 추천되어 평가를 받게 된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준공

자동차·기계·전자부품 전문연구기관 본격 운영

경상북도는 4월 9일 김관용 도지사, 정희수 국회의원, 이상천 도의회의장, 지역기업 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지역의 하이브리드 부품소재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준공식을 가졌다.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은 영천시 괴연동에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 20,499㎡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5,151㎡,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주요사업으로 산업클러스터 운영 등 네트워킹, 성능평가, 기업 관련세미나, 사업기술자문 및 교육훈련사업, 부품의 산업화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관광 홍보 지하철 서울 도심을 누빈다!

수도권 지하철에 경북관광 홍보 장식, 10월말까지 운행

경상북도는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서울지하철 1호선 천안~인천 구간을 운행하는 지하철 1편을 경북관광 홍보물로 장식하여 10월말까지 운행한다.

경북관광 홍보 지하철은 10량으로 구성된 지하철 1편중 1호차와 10호차는 경북대표 이미지로 장식하고 2호차부터 9호차는 각 시·군에 배정하여 지역별 대표 관광상품을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 축제, 특산물 등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에 기여한 공로

김관용 도지사는 4월 21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부부의 날(5월 21일)’을 앞두고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로부터 평등한 부부생활을 실천하고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사업을 통해 가족과 부부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공로로 부부명함과 감사패를 받았다.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로부터 부인 김춘희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담은 부부명함을 전달받은 김관용 도지사는 “평등한 부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건강한 가족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복한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업무 협력 다짐

국제원조사업에 경북기업 해외사업 참여 기회 확대

경상북도는 김관용 도지사와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4월 23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해외업무협력을 위한 약정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해외자원봉사활동관련 공동협력, 해외 개발 프로젝트사업에 경북기업의 자문·참여 기회확대, 정부초청 외국인 연수관련 협력, 국제협력사업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 선정, 현장방문 시상

포항 (주)지엔텍, 구미 (주)유비전 등 2개사 표창

경상북도는 남다른 기술력으로 미래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분기별로 발굴하여 시상하는 ‘경상북도 신성장 기업’에 올해 처음으로 (주)지엔텍(포항)과 (주)유비전(구미) 등 2개사를 선정, 4월 23일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포항시 남구 대

송면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지엔텍(대표 정봉규)을 방문하여 시상식을 가졌다.

신성장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각종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지원, 기술개발, 해외시장 개척사업 우선 참여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2009 우수창업보육센터 지정 패 수여

예비창업자의 전진기지·창업성공의 산실 역할

경상북도는 창업보육기능을 내실화하고 우수 창업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해 도내 28개 창업보육센터의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잠재성이 있는 10개 센터를 ‘2009 우수창업보육센터’로 지정, 4월 30일 우수창업보육센터 지정 패 및 사업비 수여식을 가졌다.

올해 최우수 창업보육센터에는 구미 1대학, 우수에 경운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미래대학, 포항대학교가 수상하였으며, 장려에는 대구한의대학교, 경일대학교, 대구대학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포항공과대학교가 수상하였다.

PCT사, 탄소소재 생산공장 기공식 개최

1억 달러 투자, 2011년 세계 1위 기대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구미4공단에 투자기로 한 GS칼텍스와 신일본석유의 합작회사인 PCT사의 생산공장 기공식이 5월 19일 김관용 도지사, 김태환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와타리 신일본석유 회장 및 계열사

시장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1억불을 투자하는 대규모 공장건설로 1백여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2,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도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국비 185억원 확보

경상북도는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물부, 지식경제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2010년 농공단지 신규조성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결과, 영덕, 예천, 봉화 등 3개 지역이 2010년도 국고지원 대상지로 확정되었다. 시군별로는 예천군 예천2농공단지 51억원, 영덕군 영덕2농공단지 70억원, 봉화군 유곡농공단지 64억원 등 3개 단지에 총 185억원이 2012년까지 연도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안전사고 예방 '문자방송 조기 경보제' 시행

경상북도는 휴일 등산객의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내에 있는 휴대폰 가입자를 대상으로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휴대폰 긴급재난문자 방송을 실시한다. CBS는 재난지역의 이동통신 기지국 범위 안의 모든 휴대폰 가입자에게 재난정보문자를 실시간,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번의 메시지 전송으로 특정 지역이나 읍면동 단위까지 정보를 동시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에 121억원 투자

경상북도에서는 수확 후 벼의 야적 방지와 수확기 농가 벼의 매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도내 상주, 의성, 예천 등 11개 시군에 건조 저장시설(싸이로) 설치 18개소 106억원, 저온저장고 설치 5개소 15억원 등 총 23개소에 121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올해 10월 전에 조기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제3회 사이소의 날' 기념행사, 홍보대사 및 홍보단 위촉

경상북도는 4월 2일 도청강당에서 경상북도 농특산물 통합 쇼핑몰인 '경북고향장터 사이소(www.cyso.co.kr)'의 탄생을 기념하는 '제3회 사이소의 날' 기념행사를 '사이소' 입점농가, 우수 고객 등 관계자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문경출신의 인기 개그맨 김종국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우수고객을 시·군당 1명씩 선발하여 총 23명의 홍보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전문의용소방대 합동 발대식 가져

경상북도는 5월 25일 안동 경상북도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소방관계자, 의용소방대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의용소방대' 합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한 전문의용소방대는 수상·산악·문화재·재래시장 4개 분야 27개대 813명으로 구성되어 소방공무원과 함께 인명구조활동,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을 전문적으로 펼치게 된다.

일본 하카타항에 경북관광 전광판 운영

경상북도는 엔고 특수로 늘어나고 있는 일본인 관광객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일본인 입국인원 최대 지역인 후쿠오카시의 협조를 얻어 올해 5월부터 하카타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내에 경북관광 전광판을 설치, 경주와 안동의 먹거리·볼거리 상품과 도내 우수 관광 상품을 수록한 대표 영상물을 대형 42인치 PDP로 상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정부기금 확보, 전국 으뜸

경상북도는 문화관광부가 확정 시달한 2009년도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사업 등 3개 주요사업에 관광진흥개발기금 32억여 원을 지원받아 전국 16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거두었다.

장마철 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경상북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가스·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시·군,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분야별 전문가 합동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에 걸쳐 '2009년 장마철 대비 가스·전기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가스·전기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발견 시 어디 서나 ☎1544-4500(한국가스안전공사),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로 신고하면 된다.

2009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상북도는 4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구미·경주·안동·상주시 등 4개 지역 6개 경기장에서 총 50개 직종 544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9년도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를 개최, 금메달 52명 등 205명의 선수가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 1·2·3위 입상자는 해당직종 기능사 자격시험이 면제되고, 오는 9월 22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4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경북도, '탄소 캐쉬백 서비스' 본격 개시

경상북도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탄소 캐쉬백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4월 30일 서울 올리브타워에서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 캐쉬백 프로그램은 지식경제부, 경상북도, 에너지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소비자가 저탄소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탄소 캐쉬백 포인트로 지급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탄소 캐쉬백 가맹점, 대중교통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제3회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개최

경상북도는 5월 16일 구미 동락공원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 도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부제:아시아음식축제)'을 개최, 도내 13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하는 세계전통의상 패션쇼와 각국의 민속공연, 전통공예품 전시 및 결혼이민여성들이 아시아 각국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시식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 발대식 가져

경상북도는 4월 17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200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민축진단'으로 178명을 위촉,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축진단은 전체 178명 중 70%인 123명이 지체, 청각, 신장, 시각 등의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홍보, 실태조사,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시설주관기관인 시·군에 신고 및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방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는 4월 29일 포항시 구룡포 수협에서 김관용 도지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룡포 어촌계 앞바다에 경상북도 수산자원개발연구소에서 생산한 전복과 넙치, 우럭 2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234명 근무배치... 지역봉사 다짐

경상북도는 4월 27일 도청강당에서 2009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를 지정 배치하고, '지역봉사 결의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로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는 전문의 85명 인턴 8명, 일반의 67명, 치과의 24명, 한의사 50명 등 총 234명으로 도내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3년간 지역보건의료를 담당하게 된다.

경북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 전달

경상북도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계안정을 통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거쳐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47명 등 67명을 선발하여 1억1천8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허 메카 '경북지식재산센터' 개소

경상북도는 5월 14일 포항상공회의소에서 특허 관련 상담에서 특허신청, 시제품 생산, 해외특허출원 등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One-stop 종합서비스를 담당할 '경북지식재산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한 '경북지식재산센터'는 도내 9개 상공회의소와 컨소시엄을 형성, 특허전문 컨설턴트의 상주로 중소기업 및 지역발명가에게 맞춤형 특허정보 컨설팅을 제공한다.





낙동포럼 참석, 사회적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강조



한혜련 통상문화위원장은 3월 31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5차 21세기 낙동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구·경북지역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빈곤·소외계층과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는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날로 침체되어 감에 따라 장애인,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간병, 가사지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통상문화위원회에서는 소외·취약계층최저생계비 등 지원보다는 사회참여를 통한 일자리 보장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조례'를 지난 2월 20일 제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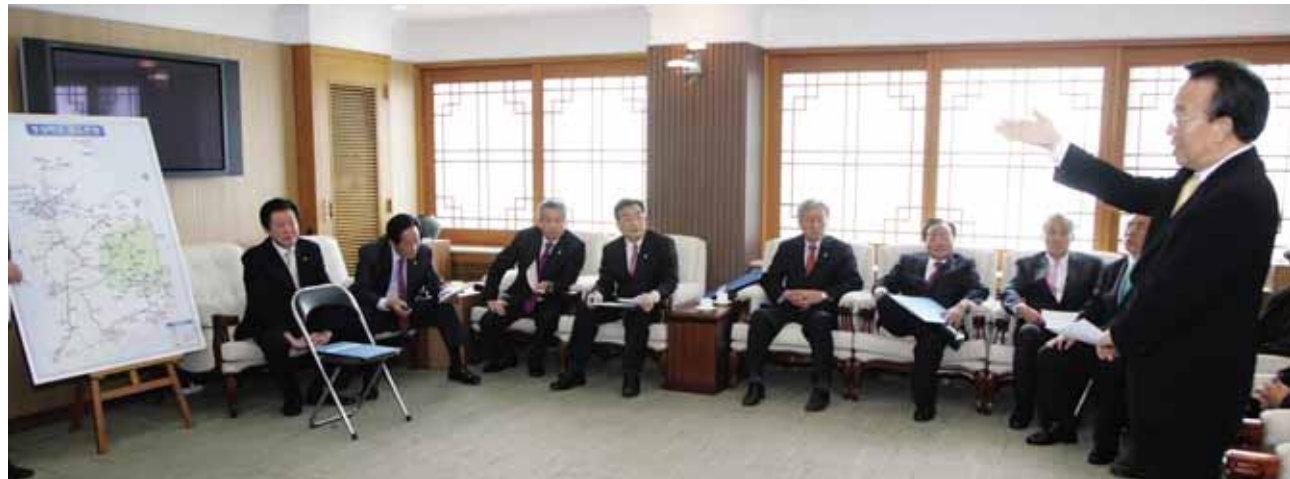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경상북도에는 (주)제일산업, 참사랑보호작업장,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 등 6개 기업이 활발한 영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구미시·문경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성요셉 직업재활센터, 고령군 노인회 등 27개 단체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중부내륙철도 조기건설 건의 도지사 면담

경상북도의회 김응규 부의장, 백영학 도의원, 이종원 도의원, 이재철 도의원, 김지수 도의원, 박영화 도의원, 나규택 도의원, 박진현 도의원 및 김천·성주·고령 등 4개 시·군 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지역 언론사·여성단체 대표 등은 3월 31일 김관용 도지사를 방문, 중부내륙(김천-진주간)철도의 조기건설과, 성주·고령 경유하는 노선조정 및 확장 복선 계획구간인 문경-상주-김천구간의 철도건설을 경상북도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토

록 건의했다.

여주-문경-상주-김천-성주-고령-진주를 연결하는 중부내륙축 철도사업이 추진되면 중부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한 중부내륙 철도망 구축으로 남해안 공업지대와 철도낙후지역을 연계한 활발한 물적·인적교류로 남북지역간 균형 발전과 지역화합, 철도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지방 4대협의체 초청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 경제위기 극복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결의문 채택

이상천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회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은 4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간담회에 참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결의문을 전달하고, 행안부장관에게 지방의 건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중앙-지방간의 상생 협력과 소통의 강화를 위한 정책협력 등을 논의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이상천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부산광역시), 남상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청주시), 이건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춘천시의회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 결의문은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청년실업 증가 등 많은 국민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는 국가적 경제 위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 및 정치권과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공동 결의문이다.



도청이전 지원 특별위원회, 중앙정부 지원 이끌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제 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11명의 위원에 대한 선임의 의결하고,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위원장은 8대 도의회 전반기 기획위원장을 맡은바 있는 예천출신의 이현준 위원, 부위원장에는 안동출신의 정경구 위원을 선임, 이날 선임과정에서 소속위원들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청이전예정지 출신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이현준 위원장은 선임 후 300만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선임

된데 대하여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며, 본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특히, 도청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제 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최대한 지원 강조

경북도의회 경제 살리기 지원 특별위원회는 4월 7일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7명의 위원에 대한 선임을 마치고,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으로 8대 도의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철곡 출신 송필각 위원, 부위원장에 포항 출신 장두욱 위원을 만장일치로 선임하였다. 송필각 위원장은 선임 후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슬기

롭게 극복하고자 의회차원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인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막중한 임무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개발과 각종 투자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위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 지역민과 각계각층의 고견들을 많이 듣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광역시의원 정수 현실에 맞게 조정 건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는 4월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2009년도 제3차

임시회를 개최, '광역시의회 의원 정수 조정 건의의 건'과 '지방의회 감사청구권 조항 신설 건의의 건', '전국 시·도의회장협의회 분담금 개선 건의의 건' 등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함께 지역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특히 '광역시의회 의원 정수 조정 건의의 건'에 대해서는 현 상태에서도 소관업무에 비해 위원수가 부족하여 소위원회 구성 또는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중요 의정활동 수행시 위원편성이 여의치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현재 6명으로 구성된 위원정수가 5명으로 감축되어 의안처리 등 의정활동 축소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 역할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지역의 현안사항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광역시의원 정수문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회운영 전문성 및 역량강화 위한 직원연찬회 "의회기능의 강화가 곧 경상북도의 경쟁력이다!"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에서는 4월 29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사무처직원 90명을 대상으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 출강하고 있는 홍원표 강사를 초빙, '실용 지방의정기법'이란 주제로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의회운영전문가 양성을 위한 의회운영 전문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론 중심의 형식적 주입식 지식 전달형태를 탈피하여 지방의회의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진행, 의회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지방행

정기능의 올바른 이해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을 전달하는 교육으로 선진적인 의회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제233회 임시회 결산>

상임위원회별 도민 민생 관련 각종 안건 처리

도정현장 현지확인 및 타 시·도 벤치마킹 실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지확인 활동을

펼쳤으며, 5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의결 처리하고, 도정현안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후 폐회했다.





농수산위원회 발의,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제정

농수산위원회가 5월 11일 회의에서 발의·가결한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이 5월 21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함으로써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귀농인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 귀농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에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귀농 희망인력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소방위원회,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간 조기완공 대정부 건의

건설소방위원회는 5월 11일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간 조기완공 대정부 건의안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 구간이 아직 확장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용량 한계점 도달로 상습체증 및 교통사고다발구역이 되고 있어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들의 뜻에 모아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등 중앙관련기관에 조속히 확장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 시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이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처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다.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서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별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 인하하는 내용이고, 경상북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소유 자동차의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 경상북도 안에서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아닌 시장·군수도 감면 신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비효율적 경비사용, 예산 사장 등 면밀한 분석·점검



경상북도의회는 5월 12일 의장실에서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9명을 선임·위촉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천출신 김응규 도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는 영덕출신 박진현 도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도의원 3명을 비롯한 재무경험자 2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9명을 선임·구성하였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間に 걸쳐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집행대하여 지출의 적법성과 예산낭비요인 등의 검사활동을 펼쳤다.

- 결산검사 위원(9명)**
- 대표 위원 : 김응규 의원
 - 간 사 : 박진현 의원
 - 위 원 : 박순범 의원
 - 위 원 : 지용섭 (재무경험자)
 - 위 원 : 박창순 (재무경험자)
 - 위 원 : 권흥락 (공인회계사)
 - 위 원 : 권태우 (공인회계사)
 - 위 원 : 이성렬 (세 무 사)
 - 위 원 : 장영일 (세 무 사)



기획경제위원회,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현장 확인

기획경제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낙동강 권역의 생태, 문화,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사업과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 및 3대 문화권사업과 연계한 국책사업화 방안과 애로점 등을 점검·확인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펼쳤다.

먼저 첫날인 5월 13일에는 낙동강 시발점인 봉화와 안동지역을 방문하여 낙동강 시발점 상징공간 조성사업지와 예던길 복원사업지 및 고택체험공간 조성사업

지를 돌아보고 북부권 개발사업과의 연계추진 등 사업 현황을 살폈으며, 5월 14일에는 예천, 상주지역을 방문하여 나루터 및 주막촌 복원 사업지와 낙동강 생물자원 건립지, 자전거 박물관 등 역사·문화권역인 중부지역의 추진상황을 살펴보았다. 5월 15일에는 고령지역을 방문하여 개경포 친수공간 조성사업지 및 회천유역 등 도심·레저권역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낙동강프로젝트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방향과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청취하였다.



경제위기 극복 및 지방의회 선진화 대책 협의 이상천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회장,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이상천 전국 시·도회의의장협의회 회장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조기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전국 시·도회의의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5월 15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4월 2일에 가졌던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간담회에 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논의"를 위한 두 번째 자리로, 지방의회가 지방현실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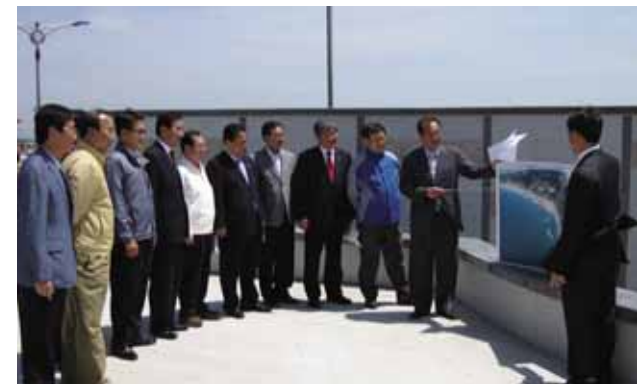


통상문화위원회, 관광산업 발전방안 모색 위한 타 시·도 현지견학

통상문화위원회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대우조선,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남해축구 경기장,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여수세계박람회, 화양복합레저단지, 흥국사 등 타 시·도의 중소기업 지원실태와 엑스포 등 세계적인 행사 추진 실태 및 준비 상황, 주요관광·유적지 개발현황,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타 시·도 현지견학을 실시했다.



농수산위원회, 농·어업 현장 애로사항 수렴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현지 확인 활동을 5월 18일부터 3일간 실시했다.

5월 18일 경주시 감포읍 소재 전촌항의 '어촌어항관

광개발사업' 현장, 청송군 현동면 거성리 당들 저수지, 청송군 부남면 이현리 소재 '청송수출채소영농조합법인'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5월 19일에는 예천군 개포면 신음리 소재 '개포면 풋고추 작목반', 김천시 응명동 소재 돼지고지 처리기업인 (주)롯데햄 공장, 김천시 남면 운곡리 소재 큰개울 농장 등을 방문하고, 5월 20일에는 고령군 성산면 기족리 소재 고령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수박, 멜론, 참외의 출하 및 선별상황을 견학하고 운영자인 고령군농협연합사업단으로부터 산지유통센터운영계획을 보고받기도 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산·경남 등 벤치마킹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부산의 영락공원(장례시설), 경남 마산의료원과 독립 남해대학 등 3곳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장·단점과 개선점 등을 벤치마킹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울릉 일주도로 미개설구간 조기 개통 촉구



건설소방위원회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울릉도를 방문하여 울릉도 일주도로 국지도 지정에 따른 미개설구간 조기 개통(발주)을 촉구하고, 울릉군 지역

개발실태에 대한 현지확인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독도를 방문하여 독도경비대원들을 위로·격려했다.

그 동안 울릉도 일주도로의 미개설구간 4.4km(내수전~섬목간)가 터널 6개소(1.644km), 교량 1개소(0.012km), 방파해안도로(1.344km), 일반도로(1.400km)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난공사 구간으로, 공사비가 3,000억원이나 소요되는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지방도로서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난 2008년 11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90호선)로 지정된 바 있다.

경북도의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발 빠른 대응 '경제 및 4대강 살리기 지원특별위원회'로 개칭

경상북도의회는 5월 21일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추진사업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제살리기 지원특별위원회'의 명칭을 '경제 및 4대강 살리기 지원특별위원회'로 개칭하여 활동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지원 및 각종계획에 경북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마련하여 4대강 중 우리지역의 낙동강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위원회, 비회기 중 긴급위원회 소집 우박피해지역 현장확인, 피해농가 지원대책 강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경북북부지역에 예기치 않은 우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5월 28일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위원회를 소집, 청송군

현서면 두현1리,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영주시 부석면 우곡리 등의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농민들을 위로·격려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 홍보 위해 타 시·도 방문 독도 수호 공동대응 및 협조체제 구축 제의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6월 3일과 4일 양일간 '우리 땅 독도, 바로 알고 지키기'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강원도의회, 강원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을 방문, 독도관련 활동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과 범국민적 독도수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의하여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기계사업 경영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기계사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6월 3일 대한건설기계협회 경북지회와 도 건설도시방재국 및 23개 시·군 건설담당부서 관계

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기계 사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재난(위험) 경보음소리 15년 만에 변경

민방공 공습경보는 지하로, 재난 위험경보는 지상으로 대피하세요!

경상북도는 태풍, 지진, 등 각종 재난이 우려될 때 전 국민에게 전달되는 민방위 재난위험경보 사이렌 소리가 15년 만에 바뀔에 따라 도내 169개소의 민방위경보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5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전에 맞추어 시설정비를 마쳤다.

변경된 재난위험경보 사이렌소리는 경보가 울리면 무조건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민방공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지하로 대피”를 해야 하고, “재난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지상”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재난위험경보(파상음 5초간격, 15초취명 10회) 소리는 민방공 공습경보(파상음 3초간격, 5초취명 22회)와 민방공경계경보(평탄음 1분간) 소리와 비교해 볼 때 음의 높낮이가 비슷해 상당수 국민들이 혼돈을 겪는데, 이에 따라 확실하게 구분이 되도록 차별화하기 위하여 긴장감이 더하는 차세대음으로 15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기본 재난경보와 변경될 경보음 비교〉



〈민방위경보 신호방법 및 대피장소〉

경보 종류	(민 방 공 경 보)			(재 난 경 보)	
	경계경보	공습경보	대피장소	재난위험경보	대피장소
전달 수단	평탄음 (-)	파상음 (~~~)	지 하	파상음 (~~~)	지 상
민방위경보 (사이렌취명)	1분간 평탄취명	3분간 취명 3초 간격 5초 취명	지 하	현 재 5초 간격 15초 취명 (10회 반복)	변 경 2초 간격 2초 취명 (3분간 취명)
신호 방법					

(담당부서 : 민방위재난관리과 053-950-3814)

경북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피해상황에 대한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를 국가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조사단원 방문 조사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기간 : 2009. 4. 28 ~ 10. 25 (180일간)
- 조사지역 : 도내 2개 지역(영덕군, 성주군)
- 조사방법 : 각 지역별 책임연구원 총괄, 조사팀 마을별 일제조사
- 조사내용 :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적대세력, 사건의 피해규모, 양상 및 실태조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피해자현황조사단

9월 30일까지 ‘오존경보 상황실’ 운영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등 6개시에서 측정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오존농도가 환경기준(0.10ppm, 1시간평균치)을 초과할 경우 도민들에게 즉시 알려주는 ‘오존경보 상황실’을 운영한다.

‘오존 경보제’는 대기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등 도내 6개시 11개 측정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경보가 발령되는 해당 시에서는 그 내용을 구청, 동사무소, 언론기관, 교육청 등에 동시통보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http://air.gb.go.kr>) 및 SMS 문자서비스(신청자에 한함)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즉시 알려준다.

오존은 바람이 불지 않고 햇빛이 강한 오후시간(2~6시)에 대기오염물질(NO2,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강한 태양광선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자극성 2차 오염물질로, 오존에 반복 노출되면 호흡기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오후부터는 가급적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오존경보제 발표기준〉

구 분	오 존 주 의 보	오 존 경 보	오 존 중 대 경 보
오존농도	0.12ppm 이상	0.30ppm 이상	0.50ppm 이상
조치 및 협조사항	실외활동 자제 자동차운행 자제	실외활동 제한 자동차사용 제한 사업장 연료사용 감축권고	실외활동 금지 자동차통행 금지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명령

(담당부서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 054-339-8173)

경북도,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위해 택배비 지원

건당 5,000원 기준, 우체국 등 택배전문회사와 연계 추진

경상북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주요한 유통체계인 소비자와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유통택배비를 지원한다.

유통택배 지원사업은 저농약 인증 이상 친환경농산물을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유기, 무농약 인증 농산물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경북지역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시장 확대를 위해 대구·경북을 제외한 타 시·도 택배시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품목은 쌀, 고추, 콩, 과채류 등의 친환경 농산물에 한하며, 완제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예를 들면 포장 쌀, 고춧가루, 메주, 죽, 엑기스 등은 지원 가능하나 고추장, 김치, 간장, 된장, 유과 등 가공 완제품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기준 단가는 건당 5천원이며, 건당 5천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을 희망하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는 연간 또는 분기별 택배 희망 사업계획을 시·군(읍·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택배의뢰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신청하면 된다.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053-950-2404)



경북도,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7월부터 만 24개월 미만 저소득아동에게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원

경상북도는 오는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않는 만 24개월 미만 아동을 둔 저소득층가정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매월 25일/계좌입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가구는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159만원(4인가족 기준) 이하이면서 만 1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 구 원 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기준소득 (최저생계비 120%)	129만원	159만원	188만원	218만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5월 1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 신청 접수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부모명의로 계좌 통장사본,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올해부터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아동 중 만 1세 이하만 대상으로 지원하고, 점차 대상인원 및 가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053-950-3953)



정부지원 보육료, 9월부터 i-사랑카드로 직접 지원

경상북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료를 시설에 지원해오던 방식을 오는 9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보육료를 지원하는 i-사랑카드(전자바우처) 시스템으로 제도를 변경한다.

i-사랑카드란 현재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정부의 보육료를 신용카드에 결합한 바우처(voucher, 서비스이용권)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지원대상 아동의 부모는 별도의 행정 절차 없이 해당 읍·면·동에서 보육료 지원신청시 i-사랑카드를 신청하고, 발급 받은 후 부모가 어린이집에 카드를 결제하면 월별로 금융기관에서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i-사랑카드 발급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지원받는 모든 가구는 i-사랑카드를 반드시 발급 사용하여야 하며, 카드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① 법정저소득층(기존 1층 지원대상 아동)
 - ② 차등보육료지원 대상자
 - ③ 만 5세아 자녀를 둔 부모(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 ④ 장애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소득 무관)
 - ⑤ 만 0세~2세(2006.1.1 이후 출생)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부모(기본 보육료 지원 대상)
- ※ 단, 국·공립 법인 등 정부인건비 지원시설에 다니는 아동은 제외

기본보육료란?

영아(0세~2세)의 경우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민간, 가정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가구의 소득에 상관없이 기본보육료 지원을 통해 영아보육 활성화를 기대

※ 0세 (35만원), 1세(16만9천원), 2세(11만2천원) 지원

i-사랑카드 신청접수는 4월 6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i-사랑카드 발급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부모명의로 계좌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i-사랑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카드의 종류(3종): 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 전용카드)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가족과 053-950-3953)



2009 경북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光** 나는 아이디어로 경북나드리 오세요!”

경상북도는 경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2009 경북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31일까지 개최,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관광 아이디어 작품을 접수 받는다.

경북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은 총 4개 주제 분야(역사관광, 녹색관광, 웰빙관광, 관광마케팅)를 대상으로 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총 19점(대상 1, 금상 2, 은상 6, 동상 10)에 대하여는 상장과 소정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경북 관광시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주대학교 동북아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의 아이디어 제출은 경상북도 관광홈페이지 경북 나드리(www.gbtour.net)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접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월중 최종 수상작을 발표, 시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관광홈페이지 경북나드리(www.gbtour.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 경주대학교 동북아연구소(054-770-5117, 5085 / byunwh@gju.ac.kr)
경북도청 관광산업과(053-950-3308)



우리 아기 청력, 정상일까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사업, 전 시·군 확대 시행

경상북도는 구미 김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을 올해부터 전 시·군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은 신생아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지능장애, 사회부적응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다.

선천성 난청은 선천성 질환 중 발생률이 매우 높은 질환 중의 하나로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능장애 사회부적응까지 낳고 있으며,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선천성 난청을 갖고 태어난다.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검사(ABR) 본인 부담금 1회 지원
- 지원대상
 - 시·군·구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산모에게서 출생한 저소득층(차상위 120%) 신생아
- 검사지원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 검사기관
 - 관할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및 검사절차
 - 해당 보건소에 방문·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 제출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053-950-2557)



안압지·보문관광단지에서 야외 국악 상설공연
주말에는 가족·연인과 함께 경주로 오세요!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의 아름다운 야경 속에서 전통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즐길 수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은 바 있는 안압지 상설공연이 올해에도 오는 10월말까지 매 주말마다 펼쳐진다.

(재)경주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안압지 상설공연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국적과 나이를 뛰어 넘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국악과 가곡, 가요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공연 및 사진·미술작품 전시, 노래자랑 등 색다른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공연에는 경주시립극단을 비롯해 시립 합창단과 동국국악예술단, (사)만파식적보존회, 서라벌팝스오케스트라, 경북챔버콰이어, 경주챔버오케스트라, 경북도립국악단·교향악단 등 지역예술 단체의 공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립국악원과

예울국악회 등 전국 유명 국악예술단과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방침이다.

또한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장소인 보문관광단지에서도 특색 있는 볼거리와 체험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야외상설공연장을 개장하고, 관광 성수기인 5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목, 금, 토, 일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전통국악인 부채춤을 비롯한 무당춤, 화관무, 태평무, 대금독주, 삼고무, 사물놀이, 만파식적, 판소리, 민요와 퓨전음악인 창작음악과 국악과 비보이의 만남, 모듬북, 난타공연 등 전통국악을 위주로 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주말에는 가족·연인과 함께 다채로운 문화예술의 대향연이 펼쳐지는 경주로 오세요!

‘구미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도시’

도시 숲 조성, 담장 허물기, 벽면녹화사업 등 10개 중점사업 추진

구미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도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공단도시인 구미시는 ‘사계절 건강한 녹색친환경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10년간 장기프로젝트로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국가 경쟁력 강화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일조하는 것으로 경제와 환경, 기후와 에너지 등을 접목하여 국가 발전을 이끌 원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미시에서는 연도변 및 생활주변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녹지조경을 비롯해 특성 있는 가로수 거리조성, 담장 허물기 사업, 벽면녹화사업, 수벽조성사업, 장미식재사업, 학교 숲 조성사업, 산림 내 휴양공간 조성, 아파트 녹지조경 강화, 범시민나무심기운동인 가정식수 등 10가지의 중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09년 3월 말 현재 33건 7,212본, 약 7억 4천만 원 상당의 나무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심는 등 287만8천 본의 나무를 식재하여 당초 목표치인 251만4천 본을 뛰어넘어 전체 목표의 29%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미시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07년에는 TBC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하는 ‘제9회 대구·경북환경문화상대상’을, 2008년에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녹색건설성 전국 평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에너지 사용량 줄인 만큼 포인트로 보상, 탄소포인트제 실시

또한 구미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4월부

터 오는 9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한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저탄소 생활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 만큼 포인트로 보상받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구미시의 탄소포인트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업 부문인 가정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구미시는 그린스타트운동을 펼쳐가는 ‘녹색구미21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196대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과 새마을대청소 활성화로 깨끗한 도심환경을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친환경자원화시설을 오는 2010년까지 완공해 환경테마공원으로 활용하고, 낙동강 생태문화체험 중심지에 자전거전용도로, 승마길이 있는 에코 트레일(Eco-trail)과 산악자전거 전용코스인 에코톤(Ecothon)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 '부품소재전용공단'에 부는 투자 바람

일본 비즈니스사절단 50여개 업체 방문 등 일본기업 관심 고조



지난 해 12월 부품소재전용공단으로 유일하게 본 지정된 구미시에 일본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비즈니스사절단이 구미를 방문해 투자유치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절단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일본 각 지역에서 10여 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며 구성한 사절단으로, 구미공단을 방문하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40여 개 사 대표와 담당자들이어서 지금까지의 어느 투자사절단보다도 투자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일본 비즈니스사절단은 일본 경제산업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지난 4월 16일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2009국제부품소재산업전시회(IMAC 2009)'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일본 중소기업인들로 이루어졌다.

일본 비즈니스사절단은 4월 15일, 구미공단에 투자해 건설한 경영을 하고 있는 도레이새한과 구미 지역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인 LG전자 등을 견학하며 발전하는 구미공단을 직접 돌아봤으며, 일본 언론에서도 관심이 높아 NHK와 도쿄TV에서 직접

취재기자를 파견하는 등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다. 구미시도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입주할 일본기업 유치를 위해 유치단을 구성하고 일본현지로 날아가 투자설명회를 갖는 등 공격적인 투자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지식경제부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4월 7일에는 주한일본대사관 오이케 아츠유키 공사 및 일본 외무성 아카호리 타케시 일환경제실장이 구미를 방문해 부품소재전용공단의 현황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해왔다.

이번 투자사절단 활동은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타로 총리의 합의사항인 부품소재산업 진흥과 관련된 현안 과제로, 일본 정부차원에서 지원과 협력을 약속한 사업이어서 도레이새한, 아사히글라스 등 일본기업이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양국 경제협력이 가장 모범적인 도시인 구미에서 펼쳐지게 돼 더욱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구미시는 투자환경설명회(도교)를 통해 발굴된 타깃기업 10여 개사와 이번에 방문한 40여명의 일본 기업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제2의 방문과 제3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2009 일본 부품 소재 조달·공급 전시회'와 통합 개최한 'IMAC 2009(국제부품소재 전시회)'의 '구미부품소재전용공단 홍보관'에 이명박 대통령이 깜짝 방문해 남유진 시장으로부터 주요 부품소재공단 등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구미가 날로 발전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구미가 제일 잘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2009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잡아

관람객 91만명 경제유발효과 200억원의 대박축제

"문향천년 다향만리"라는 주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간 문경새재 일원 및 오픈세트장에서 열린 '2009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가 91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한국최고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찻사발 축제는 종전의 도자기 전시관에서 문경새재 일원 및 오픈세트장으로 장소를 옮겨 문경새재의 흙길과 주흘산의 자연경관, 조선시대의 궁과 전통한옥, 저잣거리의 초가집이 어우러진 고풍스럽고 옛스런 분위기 속에 개최되어 장소 마케팅에 성공한 것이 최고의 성과로 손꼽혔다. 사극 촬영장을 행사장으로 활용한 2009 찻사발 축제 무대는 예전의 천막과는 다른 분위기의 연출효과와 궁궐에서의 전통문화 놀이와 다례체험 등으로 인해 찻사발축제가 지향하는 고품격 웰빙문화에 더 한층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경전통도자기명품전과 무형문화재특별전, 문경의 도자 100년 사진전 등 지역 도자기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전시뿐 아니라 전국 도예명장 8인

특별전으로 다른 지역 찻그릇과 비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관람객들이 직접 찻사발 빚기, 찻사발 흙 맨발걷기, 문경 특유의 망댕이 가마 불 지키기 등 지난해에 비해 도자기, 다례, 차 관련 도구 전시 및 판매, 체험행사를 확대 시행하였으며, 축제홍보관 및 공예명장 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전통축제로의 품위를 살려 품격 있는 축제장을 연출하고, 어린이 축제 및 어버이 날 효도큰잔치를 실시하는 등 행사기간 중 특색 있는 날을 운영하여 찬사를 받기도 했다.

매년 참가국 수와 작가가 늘어나고 있는 찻사발 국제교류전은 일본과 중국, 타이완, 영국, 미국, 캐나다 등 24개국이 참여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차 문화를 살펴보게 하는 비교학습의 장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문경과의 인연을 돈독히 다져가고 있는 해외작가들은 참여작가로 머무르지 않고 문경시가 목표로 하는 문경 찻사발 세계화의 과제, 곧 문경 찻사발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고령군,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개원

가야인 생활상 체험하는 대가야입체영상관 등 조성

고령군은 고령읍 지산리 15만4천㎡ 부지에 206억 원을 들여 토기, 철기, 가야금 등 고대문화를 테마로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를 조성, 지난 4월 9일 개원했다.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는 가야산성, 대가야입체영상관, 기방·토기방 체험관, 바닥분수, 유물(가옥, 토기형)체험관 등



의 시설물과 대가야탐방숲길 등을 조성하였으며, 주변에 대가야박물관과 왕릉전시관, 고분군이 인접하고 있어 학생들의 체험교육과 휴일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야산성은 테마관광지의 정문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건축물로 관광안내, 사무실, 매표소, 휴게실 등으로 구성·설치되었고, 대가야입체영상관은 '철의

왕국 대가야'란 주제로 대가야의 흥망성쇠를 4D 영상을 통해 상영하는 체험시설이다. 또한 유물(가옥, 토기형)체험관은 영상과 빛, 음향 연출로 가야인의 의식주 생활상을 알

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이 밖에 토기·철기방 체험관에서는 직접 제작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숲길을 거닐며 퀴즈를 풀어보는 대가야 탐방 숲길, 야외무대, 분재전시관 등도 가 볼만 한 곳이다.

사문진교 확장 준공기념, 낙동강 문화 개통식 개최

고령군에서는 '사문진교 확장 준공기념 낙동강 문화 개통식'을 5월 7일 일 사문진교 아래 하천부지에서 이태근 군수를 비롯하여 김관용 도지사, 김범일 대구시장과 낙동강을 연결한 가야문화권 자치단체장, 관련기관·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및 주민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낙동강 관련 사진 전시, 모터보트 퍼레이드, 축하공연 등 식전행사와 기념식, 사문진교 개통 및 낙동강 살리기 염원퍼포먼스 등 본 행사, 대가야 배 향해 퍼레이드, 패러글라이딩 비행, 대북공연 등의 식후행사로 진행되었다.

행사가 펼쳐진 사문진 나루터는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인 1901년 5월에 낙동강 뱃길을 이용하여 대구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도입된 역사적인 장소

이기도 하다. 이번에 준공한 사문진교는 고령군 다산면과 달성군 화원읍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4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차선으로 확장하였으며, 단순한 교량기능을 넘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의 인적·물적 및 문화 교류 등을 통한 상생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령군은 이번 행사의 명칭을 '사문진교 확장 준공기념 낙동강 문화 개통식'이라고 명명, 낙동강 사문진교 4차선 확장 준공을 기념하고,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과 낙동강에 연결한 자치단체의 활발한 문화교류 및 영남권 생명의 젓줄인 낙동강 살리기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Gyeongju World Culture Expo Park

다시 가고 싶은 곳!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2009년 2월 21일 개장(연중무휴)

● 주요 프로그램

문라이트 레이저 쇼(Moonlight Laser Show)
3D 애니메이션 월드 / 신라문화역사관
아이 삼국유사 / 백남준 백팔번뇌
세계명화갤러리 / 세계화석박물관
캐릭터 판타지 월드 / 펀펀(Fun Fun) 모험나라
CT(Culture Technology) 체험관 등

● 관람시간

평일 10:00~18:00(6·7·8월 10:00~19:00)
토·일, 공휴일 10:00~19:00(6·7·8월 10:00~20:00)

● 입장권 종류 및 요금

	구분	엑스포공원 입장요금	패키지 요금
보통권	성인(대학생 이상)	6,000	9,000
	청소년(중·고등학생)	4,000	6,000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3,000	4,500
단체권 (20명 이상)	성인(대학생 이상)	5,000	8,000
	청소년(중·고등학생)	3,500	5,500
	어린이(유치원, 초등학생)	2,500	4,000

* 패키지 요금 : 엑스포공원 입장료 + 세계화석박물관 입장료
* 주차장 : 무료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780-270 경상북도 경주시 천군동 130
Tel. 054)748-3011 Fax. 054)748-3012 www.cultureexpo.or.kr